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불서 읽기 캠페인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발심수행장) 일타 | 호림 | 1994

정은 스님(시인, 충남 보령 세원사)

‘발심수행장’은 내 수행의 ‘멘토’

중생들에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기 위해 팔만가지 방편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 중 어떤 것을 접해도 소중하지 않고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내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 불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이다.

원효 스님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중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높은 산 높은 바 위 지혜로운 이의 살 곳이요 / 푸른 숲 깊은 골짜기 수행인이 살 곳이라 나무 열매로 주린 창자 위로하고 / 흐르는 물마시며 갈증을 식히네 좋은 음식으로 아찌 보살피도 이 몸은 결경도 무너지고 / 비단으로 감싸 보호해도 목숨은 반드시 마쳐나니

외우고 또 외우며 ‘아, 수행은 이런거구나’ 마음 약해질때 버팀목 되어주는 가르침

저 나갔던 기억이 난다.

이제 무르익어가는 절집나이 때문에 더러는 구절구절의 내용은 다 기억 해 내지는 못하지만 그때 다지고 다진 그 깊은 뜻이 몸속에 배어 건강한 수행을 하고 있다. 흔히들 말한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대부분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10퍼센트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할이 사람일수도 있고 환경의 책일수도 있다. 끊임 없는 자신의 숨은 가능성을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Mentor)’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멘토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은 열리고 바뀌어 갈 것이다. 내 수행의 멘토는 <발심수행장>이었다.

매아리 울리는 바위굴로 염불강을 삼고 / 슬퍼하는 기러기로 마음의 밭을 삼을지라 찰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불 생각을 하지 않고 / 주린창자 끊어 쳐도 먹을 생각 말지어다 백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 하며 / 일생이 얼마이기 다투지 않고 방일하라

발심수행장은 원효대사의 논총 1백권 책 240권 중 가장 짧지만 저술이지만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히는 가장 밝은 등불이요 감로의 법우(法雨)이며 또한 이 땅의 수행자들이 수백년 동안 이 책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마음을 닦아 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불서(佛書)이다.

‘내 인생의 불서 한 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jin@buddhapia.com



대학 시절부터 관심 ... 주종 작업 체험도 종 자체가 거대한 기호 덩어리, 설화로 풀어

이나 일본 고대종에는 그런 요소들이 일절 없습니다. 이 점은 에밀레종이 어떤 통일된 원리에 따라 주조된 일종의 기호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에밀레종은 옛날의 신라인이 오늘의 우리에게 보낸 기호의 덩어리인 셈이지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읽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판파식적 설화를 대입하면 그것들의 상징적 의미가 일기에 풀립니다. 요컨대 맨 꼭대기의 거룩한 용은 동해용왕으로 환생한 문무왕이고, 용이 짙어진 원통은 그가 아들 신문왕에게 전한 판파식적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문무왕이 판파식적을 짚어지고 창파를 헤쳐 물로 달려오는 극적인 장면을 찬탄하는 장엄요소이지요. 신문왕 등 후계자들에게는 국가적으로 그보다 경사스러운 사건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종 어깨를 따라 묘사된 36송이의 연꽃은 숫자상 정입니다. 36이란 숫자는 고대중국에서 천하, 즉 땅을 뜻하거든요. 결국 종북은 하늘, 맨 위의 천판은 바다, 연꽃은 땅이 됩니다. 이렇듯이 신라종은 천지해(天地海)가 삼위일체를 이룬 하나의 완벽한 우

주로서 디자인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어떤 문명권에서도 종을 하나의 우주로 상징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지구상의 모든 종은 오직 두 가지, ‘신라종’과 ‘비(非) 신라종’이 있을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덧붙이면 학계의 주류가 용종이라는 중국고대 악종에서 우리 범종의 기원을 찾고 있는데, 어불성설이지요. 에밀레종은 우리의 독자적인 양식입니다.

-그간 ‘석굴암’, ‘에밀레종’ 등에 천착하시어 좋은 결과물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석굴암과 우리 범종의 20세기 초 사진 자료 전시회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제 석굴암 연구의 결정판을 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미술에서 독특한 향기를 뿜어내는 도깨비와(귀면와), 논란이 많은 첨성대 등에 대한 단행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정 때 엽서들을 가지고 경주 기행책을 한 권 펴내고 싶기도 하고요.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에밀레종의 비밀’ 낸 성낙주씨 저자 인터뷰

“오직 하나뿐인 종 완벽한 우주...”

‘에밀레종’. 정확한 명칭은 ‘성덕대왕 신종’이다. 국보 제29호인 이 종은 신라의 소리와 우리 민족의 소리다. ‘에밀레종’은 소리와 조형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우리 문화의 한 원형이며 영원한 수수께끼이기도 하다. 미술사와 금속학은 물론 음향 연구자들에게도 신비의 유산인 ‘에밀레종’의 비밀을 성낙주 소설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풀이했다. <에밀레종의 비밀>을 펴낸 작가를 만났다.



- 저술 동기?

‘매혹된 영혼’이라는 말이 있지요. 제가 꼭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는 건설으로 보아 넘겼는데, 동국대 국문과 시절 경주박물관에서 에밀레종을 다시 만났을 때는 답답했어요.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은 물론이고 어떤 영적인 에너지라고나 할까, 전을 같은 것이 다가왔거든요. 한마디로 매혹당한 것이지요. 조규동 선생이 1960년대에 녹음한 에밀레종 소리를 구해 책상머리에서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1981년 말에 발표된 황수영 박사의 판파식적 기원설을 계기로 에밀레종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저의 데뷔 작품인 <차크라바르탄>(1995)인데, 춘다라는 주인공을 아예 종장으로 설정했지요. 범종사(梵鐘師) 공방에 가서 주형틀에 직접 쇳물을 부어보면서 주종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에밀레종의 탄생 배경이나 조형원리에 대한 공부가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번 책에서 에밀레종에 관한 제 나름의 해석을 맘껏 풀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 에밀레종의 예술성과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복합적 관점에서 살피셨는데 작가로서 ‘에밀레종’을 정의한다면?

예술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특히 개인 작업이 아닌 집단 작업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는 더욱 첨예하게 그 시대의 사상이나 욕망을 대변합니다.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구층대탑, 진평왕육대 같은 상대신라의 삼보가 그런 것들인데, 종대의 무열왕계도 판파식적과 흑옥대 같은 신기(神器)를 만듭니다. 에밀레종은 무열왕계 왕실의 마지막 신기로 제작된 것이지요.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중생들이 종소리를 듣고 구원받기 바라는, 또 종대왕실의 영속을 기원하는... 이름에다 특별히 ‘신종(神鐘)’이란 단어를 붙인 까닭이 거기에 있지요.

- ‘전설’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원형 사건’을 검토했는데 작가적 의도는 무엇이고 평은 어떤지요?

전설은 ‘낱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어설과 보이지만 한 시대의 비판적 지식인이나 민중이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문학)의 형태로 살짝 변형시켜둔, 참으로 ‘싱싱한’ 사료(史料)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은 일종의 가면이고, 그 뒤에 역사의 맨 얼굴이 감춰져 있다고 보면 좋겠지요. 이번

제가 다룬 에밀레종전설하고 판파식적(廣波息箭)전설이 좋은 예입니다. 두 전설은 우리 역사의 황금기를 열어젖힌 종대신라 무열왕계 왕실의 출범과 몰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엘리트 사가(史家)들이 놓친 역사의 진실을 치밀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가면을 벗겨 에밀레종의 정치사 및 예술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 에밀레종의 예술성과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복합적 관점에서 살피셨는데 작가로서 ‘에밀레종’을 정의한다면?

예술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특히 개인 작업이 아닌 집단 작업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는 더욱 첨예하게 그 시대의 사상이나 욕망을 대변합니다.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구층대탑, 진평왕육대 같은 상대신라의 삼보가 그런 것들인데, 종대의 무열왕계도 판파식적과 흑옥대 같은 신기(神器)를 만듭니다. 에밀레종은 무열왕계 왕실의 마지막 신기로 제작된 것이지요.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중생들이 종소리를 듣고 구원받기 바라는, 또 종대왕실의 영속을 기원하는... 이름에다 특별히 ‘신종(神鐘)’이란 단어를 붙인 까닭이 거기에 있지요.

- 무엇보다 ‘에밀레종의 기호학적 분석’이 눈길을 끄는데,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밀레종을 포함해 모든 신라종은 구성요소들이 똑같습니다. 고리 노릇을 하는 종머리의 한 마리 용, 그 용이 등허리에 짊어지고 있는 원통(圓筒), 종북(鐘腹)에 새겨진 아리따운 비천, 36송이의 탐스러운 연꽃 등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

Advertisement for '지구산업' (Jiguk Industry) featuring a wooden table and a traditional Korean house. Text includes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and '지구산업' logo.

Advertisement for '양지국악사' (Yangjikukak) featuring a colorful drum. Text includes '양지국악기 제작소'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새는 지붕' (Sae-neun Jibung)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house. Text includes '새는 지붕' and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dvertisement for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featuring a portrait of a Buddhist monk. Text includes '대원 문재현 선사님' and '법회 안내'.